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귀국 보고서

| 성명 | 학번 | 소속(대학,과,전공) | |
|------|---------------------|-------------|-------------------------------|
| 이은진 | | 글로벌금융경영학과 | |
| 프로그램 | 정규교환학생 | 파견국가 및 대학 | University of Wisconsin-Stout |
| 파견기간 | 2021 2학기 - 2022 1학기 | 연락처 | |

1. 파견대학에 관한 기본 정보

위스콘신 스타우트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백인비율이 많으며, 날씨가 11월부터 4월까지 눈이오며 날씨가 흐리고 대체로 추운 계절입니다. 파견오실 때에 본인과 관련된 학과와 수업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을 융합전공하고있는 저한테는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별로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캠퍼스는 나름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MSC라는 건물에서 학생들이 쉬고, 공부하고, 카페등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있는데 그 외에 도서관 등 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2. 지역 및 생활에 관한 기본 정보

날씨정보

제가 도착했던 시기인 8월 말에는 날씨가 무척이나 맑고, 햇빛이 세고, 따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스콘신 지역은 워낙 겨울이 길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지역 사람들은 추위가 익숙해진 나머지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져도 밖에 나와서 러닝을 뛰고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다닙니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4월까지 날씨가 미친 듯이 눈이 오고 흐리기를 반복하며 1월, 2월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등 엄청 춥습니다. 속눈썹이 얼어요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넵, 이렇게까지 겨울이 길 줄 몰랐습니다. 정말 날씨가 미쳤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4월까지 맑은 날을 보기가 힘들어서 아쉬움이 가득 남았습니다. 2학기가 끝나갈 무렵 5월부터 맑아지기 시작해서 겨우 즐기려다가 다시 돌아왔네요 그래도 1학기 때에는 2학기보다 날씨가 맑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드넓은 하늘을 많이 볼 수 있고 공기가 맑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옷차림 등 짐싸기 정보

옷차림은 반팔과 어느 정도 환절기의 옷, 그리고 겨울옷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2학기를 갔다 오실 분들은 롱패딩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날씨가 무지무지 추워요... 코트는 개인적으로 안 챙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안 챙겼는데 코트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또한 햇빛이 세기 때문에 선글라스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잡동사니들은 한국에 놓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짐쌀 때 다 짐이 됩니다. 미국에도 웬만하면 다 있기 때문에 약도 필요한 만큼 챙기시고, 저희가 드라이기나 전기담요 등을 기부했는데 필요하시다면 담당자 다니엘이나 제가 다녔던 메노모니 한인교회에 여쭙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위스콘신은 추위로 유명한 지역이고, 건조해서 인공눈물이나 핸드크림 바디크림 등 쓰는 제품이 있다면 충분히 들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나머지는 다 아마존으로 시키시거나 월마트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도착했을 때 자가격리가 풀리고 월마트에 다니엘이 단체로 데려가줘서 필요한 것들을 사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존은 학생 프라임을 적용할 수 있어서 배송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월마트 가는 차량도 community school bus를 타고가면 되기 때문에 시간표를 보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식당 마트 정보

주변에 그래도 식당이 조금 있는 편인데 Acoustic Cafe는 샌드위치를 파는데 맛은 무난하고, 도미노 피자도 커스텀해서 피자를 시켜먹을 수 있는데 맛이 꽤 괜찮습니다. 위생이 안 좋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제일 추천드리는 식당은 Hang's cuisine입니다. 원래는 디스마켓 옆에 있었는데 이전해서 학교 주변으로 왔어요, 쌀국수와 볶음밥, 팟타이, 누들 등을 파는 음식점이고 주인장님도 친절하세요 그리고 버블티도 맛있습니다. 가끔 버블이 없을 때가 많기는 하지만TT 저는 바질 프라이드 라이스랑 쌀국수를 자주 시켜먹었습니다. 또한 Lucette Brewing company라는 곳도 있는데 피자과 맥주를 팔아요 피자 가격은 좀 나가지만 피자 도우가 얇아서 한 사람당 한판을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도 맛도 있고 맥주 양조장도 식당 안에서 보입니다. 그 외에 마트는 Dick's market, Walmart, ALDI, Asian Mart등 있는데 알디에서는 과자를 싼 가격에 팔아서 과자를 사기에 좋습니다. 아시안 마트가 주변에 있으나 한인마트가 아니라서 없는게 많고 라면이 좀 비싼 편이긴 해요 그래도 월마트에 없는 불닭볶음면을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편의점은 CVS, Kwick trip이 주변에 있습니다. 자가격리 할 때 사우스 홀에서 머물렀는데 그 때 저희가 가장 가까웠던 쿼트립을 이용했어요. 여기에서 파는 도넛이 싸고 정말 맛있어요! 바나나도 날개로 판매하고 햄버거 냉동 피자, 여러 가지 판매 합니다. 주유소에 있는 편의점이라 처음에는 조금 이색적이었던 것 같아요.

3. 수강과목 및 수업활동에 관한 정보

저는 정규교환학생으로 와서 전공수업과 교양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1학기 때 들었던 수업은 international Business, Principal of Marketing, Principle of Micro, Introduction to Psychology입니다. 스타우트에서 수업을 들으려면 무조건 in person 수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마케팅 수업에서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이 별로 없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psychology에서는 토론식 모둠 수업이 있었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괜찮았고, 시험도 온라인이라 나름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재미있게 들었던 수업은 Principle of Micro입니다. 사실 과제도 매주 있고, 시험도 여러 번 보지만 과제를 열심히 했더니 문제도 풀만했고, 교수님이 열정적이셔서 저도 집중력 있게 잘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케팅과 비즈니스 수업에서는 발표가 있었는데 마케팅에서는 발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마케팅이 제일 편안하고 수월했던 수업으로 기억하고 비즈니스는 매 주 퀴즈와 토론식 과제가 있어서 가장 까다로웠던 수업으로 기억합니다. 미국친구들은 발표를 여러 번 한 경험이 있어서 확실히 여유롭고 말을 유창하게 잘합니다. 처음으로 영어로 발표하는 거라 많이 떨리기도 했지만 마케팅은 저 혼자서 했기 때문에 대본을 써서 읽으면서 발표를 하였고 점수도 잘 받았습니다. 비즈니스 수업은 짝꿍이랑 같이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잘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발표에 엄청 큰 두려움을 안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2학기에는 Corporate and Managerial Accounting, Cost Accounting, Business Finance, Trend Tracking and Forecasting 수업을 들었습니다. 관리회계와 원가회계 그리고 기업재무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확실히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개념이다보니 관리회계가 가장 들을 만 했습니다. 원래 그 전에 이 수업들을 들으려면 이수해야하는 필수과목들이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회계원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 과정을 건너뛰고 교수님께 문의를 하여서 전공3개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 처음에는 많이 당황할 수 밖에 없었던게 개념을 영어로 외워야 하고 축약된 부분도 많아서 익숙해지는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들은 발표가 없는 대신에 connect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 주마다 문제를 풀어야했습니다. 사실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든지 패스를 할 수 있었지만 Cost Accounting과 Business Finance는 가능한 듣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공의 거의 최고봉 수업이다보니 내용이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ㅠㅠ Trend Tracking and Forecasting은 조별로 발표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패션트렌드를 예측하고 배우는 수업이었어요 과제도 별로 없어서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수업내용이 별로 없어서 아쉬운 부분은 많았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미국인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도 했었는데 한국에서 수업듣는 것과 비슷해서 전공수업을 들으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니다. 다른 수업은 잘 모르지만 활동이 활발한 수업들은 상대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기타 수업 외 활동에 관한 정보

교환학생에 와서 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친구들이 다가오는 일도 별로 없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말을 걸지 않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은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학교 수업 외에 동아리 활동도 참여해보시고 1학기 초반에는 피크닉처럼 인터네셔널 학생들끼리 모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참여하셔서 추억을 많이 쌓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학기초반에 동아리 부스를 열었을 때 볼링 동아리를 잠깐 들었었는데요. 매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요일을 정해서 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레크리에이션과 컴페티션으로 나뉘어서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컴페티션에 참여도 했어요. 사실 재미로 볼링을 치고 싶어서 참여한 것이었는데 동아리 학생들 대부분이 고등학생 때나 어렸을 때부터 볼링을 쳐왔던 친구들이라 수준급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실력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세 번 정도 나가고 그만뒀습니다... 동아리를 하려면 회비를 내야하는데 저는 잠깐 했던거라 회비는 안내고 나왔어요 그래도 나름 재밌는 추억이었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관 시설 안에서 매 주 금요일 3시 이후부터 클라이밍을 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학기 초반에는 클라이밍을 자주 갔고, 거기서 매 주 오는 친구들을 보다보니 미국인들과 살짝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 학교에 있는 교회를 찾고 싶었는데요 CRU라는 동아리와 believers campus church가 있습니다. believers campus church에서는 매 주 수요일 7시에 예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친구와 2학기 때 알게 되어서 뒤늦게 2번 나갔었는데 조금 더 일찍 참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미국인 친구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한국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메노모니 한인교회가 생겨서 한국인 목사님과 한인 분들과 교환학생 친구들 다 같이 한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 주일마다 3시에 예배드리고 픽업도 해주러 오셔서 예배를 드린 후에 다 같이 한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지에서 생활 한다는 것이 힘들고 외로울 수 있는데 덕분에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추억을 쌓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차가 없어서 항상 고생했는데 저희에게 픽업서비스도 해주시고 생활하는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menomonie9182>

5.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 후 얻은 것/성취한 것에 관한 정보

교환학생을 통해서 얻은 부분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가 예의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예의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관계중심인 한국과는 다르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여 본인의 생각을 확실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저의 의견을 내세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여행을 하며 추억을 쌓았다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영어실력도 처음보다는 많이 늘고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한 두 문장을 내뱉는 것이 어렵지 나중에서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서 곧 잘 스몰토크도 하며 질문도 서스럼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의 언어를 완벽히 배운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교환학생 1년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어요. 미국에 오니까 소통을 위해서 영어를 해야 할 의지가 좀 더 생기고 목적을 만들어 준 느낌이라서 한국에 와서도 꾸준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도전이었는데 수업을 듣는 것도 과제를 하는 것도 걱정했던 것에 비해 주어지면 다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작은 성취감을 맛보면서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도착 후 해야할 일, 비자 신청, 현지 생활 등 관련 팁)

저는 토플공부를 했는데 확실히 영어 수업을 들을 때 토플이 왜 필요한지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문맥을 따라가려면 교수님이 중간에 다른 얘기도 하시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해요. 영어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환학생 와서도 영어공부를 틈틈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영어실력을 늘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부딪히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영어발음과 현지인이 쓰는 영어발음은 차이가 많이 나서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발음을 원어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는데 조금씩 고치다보면 영어를 말하는데 있어서도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레 겁을 먹는 것보다 우선 자기의 의견을 생각나는대로 말하고, 손짓 발짓 다하다 보면 소통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마다 마음을 다지는 것이 중요해서 학교 이외에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서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환학생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지만 나중에 되면 정말 학교와 과제가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하고, 기숙사 안에만 있는 것보다 여러 활동들을 하며 교환학생 생활을 후회없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